

#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가



##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휴대전화 벨이 울린다. 지역번호 '02'가 화면에 뜬다. 서울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필경 '스팸'일 것이다. 그래도 한번 받아 볼까? 혹시 청와대에서 연락했을지도... 이참에 한자리 주겠다면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래도 '청문회' 무서워서 거절해야 할 것 같다.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에 속옷까지 온통 발가벗겨지는 그 수모를 내 어찌 감당하겠나. 헛된 망상 버리고 그냥 '무관유한'(無官有閑)의 즐거움이나 누리자.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을 보면, 유일하게 화면의 바깥쪽을 응시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엠파는 소년이다. 아이는 엠파가 담긴 목판에 연결된 기다란 띠를 X자 모양으로 양 어깨에 둘러맸다.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목판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엠파를 팔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엠파는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다녔다. 손수레 위에는 날뻗지도

만든 엠파판을 올리고 그 아래에 고물을 넣었다. '잘그락 잘그락' 어디선가 엠파수의 가위 놀리는 경쾌한 쇠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들은 너나없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가난했던 시절이라 현금을 내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부러진 손가락이나 찌그러진 양은 냄비 또는 반병이나 쇠토막 따위의 온갖 고물을 들고 나와 엠파로 바꿔 먹었다. 엠파락을 부러뜨려서 그 속의 구멍 크기나 수효를 겨뤘던 엠파치의 기억도 새롭다.

엠파수가 가지고 다니던 엠파는 우선 가늘게 뽑은 흰 가래엠파가 있었다. 또한 덩이제 목판에 얹혀 있는 엠파에 끌(연장)을 맨 뒤 가위 손잡이로 '땡땡' 내려쳐서 떨어지던 붉은 갱엠파(편엠파)가 있었다. 이때 엠파를 얼마나 잘 것인가는 순전히 엠파수 맘이었으니, 고물을 주고 바꿔 먹는 엠파의 양은 그때 그때 달랐다. '엠파시 맘대로'라는 속담이 생겨나 이유다. 그렇다면 엠파수는 1분에 가위질을 몇 번이나 할까? 다 알다시피 '엠파시 맘대로'다.

### 판사, 엠파수 그리고 스님

오늘, 엠파에 얽힌 오래된 추억을 떠올려 본 것은 문득 '엠파수 판사' 효봉 스님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효봉(1888~1966)은 근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고승이다. 그는 원래 판사였다. 속명은 이찬형. 1913년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가 되었다. 그가 판사직을 버린 것은 1923년 한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후 회의(懷疑)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독립군이었다는 말도 전해져 온다.

그때 더욱 심한 고뇌에 빠진 그는 시장을 배회하다 지나가던 엠파수를 발견한다. 군대군데 헤진 곳을 께뉘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가위를 흔들고 있는 사내. 이찬형은 이 사내에게 말쑥한 양복을 벗어 주고 엠파를 인수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엠파수로 전국을 떠돌며 유랑 결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눈 밝은 노스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 "행색이 엠파수지, 엠파수는 아니지요?" 출가(出家)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서른여덟 살,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세속을 떠났다. 그런 만큼 수행은 치열했다. 영당에서 진물이 흘러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지독한 수행이었다. 그래서 '절구통 수좌'로 불렸던 효봉 스님은 금강산 토굴에 스스로를 윤패하고 1년 6개월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 (그는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과 고은 시인의 스승이기도 하다.)

오늘, 효봉 스님의 일화를 이리 적어 본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64) 재판관의 과거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어느 시민군에게 내린 사형 판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그해 5월, 버스 운전사였던 배

모(64) 씨는 시민군을 태우고 이동하다 경찰 저지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네 명이 숨졌다. 당시 이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1심 재판관이 바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지 10개월쯤 된 27세의 김 후보자(당시 중위)였다. 세월이 흐른 뒤 배 씨는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엿고제 청문회에서 "당시의 경험은 평생 괴로움으로 남았다"며 사과했다. 아마 그 또한 '엠파수 판사' 효봉 스님처럼 참회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한 측인 5·18 단체들 '실정법이 지난 한계를 넘기 어려웠던' 이 판결을 이해하고 용서했다. 백발이 된 배 씨 또한 어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김 후보자와 악수를 나누며 용서의 뜻을 밝혔다.

### 김이수 재판관의 평생 명에

한데 참으로 기막힌 일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두환 군부에 협조했기 때문에 현재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텐데 그 군부야말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한국당의 뿌리(민정당) 아니었던가. 전라도말로 하자면 참 '얼척 없는' 일이라 하겠다.

김 후보자는 전북 출신이지만 중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다.(광주서중·전남고) 장인은 고(故) 정규우 광주중앙교회 목사이며 부인은 이화여대

학생운동 1세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보수층에서는 그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어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아니다. 단지 '특정 개인의 책임을 조직 전체에 전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특별한 일이 불거지지 않는 한 김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나저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수도룩하다. 장관 자리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애써 쓸 만한 사람을 찾아내도 곧장 갖가지 흠결이 드러나고 만다. 산 좋고 물 좋기 어려운 것처럼 도덕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은 썩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도덕성 검증에서 드러난 흠결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도 될 것인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엠파수 엠파락 자르듯'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희도 한번 당해 보라'는 식의 '발목 잡기'만 언제까지고 계속될 테니까.

# '우병우 라인' 줄줄이 좌천

## 법무부 檢 고위 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검사장 4명 사의 양부남, 대검 형사부장 영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이상범

양부남(56·사법연수원 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검찰 요직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자리는 박준택(51·21기·광주)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다.

담양 출신인 양 부장은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이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일부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고강도 개혁 인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우병우(50·1971)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53·1971)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다.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점식(52·207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1971)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7기) 대구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다.

김진숙(53·22기), 박운해(51·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3명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처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가 단행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



### 장시호 구속 만료 석방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등 4명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외에 이번 인사를 지켜본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단행될 검찰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정목자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기차·수소연료차 하늘색 번호판 부착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택시 등 사업

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하늘색 전용번호판에는 작은 태극문양이 촘촘히 배경으로 삽입됐다.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자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넣었다. 전용번호판에는 국내 최초로 빛을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반사율이 높아 야간 차량 간격 유지, 갓길 주차차 추돌사고 방지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연합뉴스

### '5·18 구묘역 민주열사' 1면에서 계속

조선대 민주조선(학내신문) 편집위원장으로 학원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1989년 제4수원지에서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열사. 1991년 '미국 반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전남대생 박승희 열사도 이 곳에 잠들어 있다.

'진혼가', '조국은 하나다' '나의 갈, 나의 피' 등 198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김남주 열사도 이 곳에 영면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 촉구 시위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숨진 스무 살 연세대생 노수석,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시위 도중 쓰러져 숨진 스무 살 조선대생 류재을, 류재을 열사의 67일간의 장례 투쟁을 주도한 후

1997년 경찰 추적을 피해 몸을 숨기다 숨진 스물일곱 살 광주대생(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열사.

일생을 민족자주-평화통일 운동에 헌신하다 50세를 일기로 숨진 김양무 열사. 2009년 '노조탄압, 부당해고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몸에 걸고 40세에 생을 마감한 대한통운 노동자 박종태.

2015년 8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광복 7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분신으로 항거한 최현열 열사(당시 81세).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에 쌀값 보장을 촉구하려고 보성에서 올라갔다가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도 이곳에 잠들어 있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 상 가 건 물

1. 성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 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 문의 010-9203-6161